

매일 소독·마스크 착용했지만 직원 이어 수용자까지 확진

광주교도소에 변진 '코로나19' 직원·가족·수용자 등 확진 7명 단체생활 특성 연쇄 감염 우려

광주에서 코로나19가 격리시설인 교도소 교정시설까지 뚫었다. 광주교도소 직원에 이어 수용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감염을 막아 내진 못했다. 교도소 수용자가 감염된 것은 김천소년교도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다.

23일 광주시 방역 당국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날 광주교도소 수용자 1명(광주 618번)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지난 22일에도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수용자 중 총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교도소는 수용자들이 혼거실·독거실 등에서 취침과 식사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다. 실제 역학조사관이 교정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확진자 동선 등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소 측은 수용자들에게 빨아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자체 확보하거나 기부받은 일회용 마스크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마스크를 매일 지급하지는 않지만 병원, 법원 등으로 외출할 때는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는 게 교도소측의 설명이다. 또 혼거실 생활을 하는 수용자가 많은 만큼 매일 두 차례 소독 방역도 한다.

다만 단체생활을 하는 교도소 특성상 한 번 풀리면 연쇄 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강화한 방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자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전수조사 및 강화된 방역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5년 이전한 광주교도소는 다른 교도소보다는 여건이 나은 편이지만 3~5명(중방), 8~10명(대거실)의 수용자들이 한방에서 거주한다. 전체 수용자만 1995명에 이른다. 확진된 수용자는 5명 정원 방에서 총 4명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수용자의 코로나19 확진은 지난 2월 경북 김천소년교도소 사례 이후 국내 두 번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21~22일 교도소 직원 49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쳤다. 확진된 직원과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 365명을 우선 검사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를 진행



23일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 당국이 교도소 내 역학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도소 직원인 524번 확진자 가족 2명도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616~617번 확진자가 됐다. 524번은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가족은 자가 격리 해지 전 검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광주 교도소 관련 확진자는 직원 3명(520번, 524번, 607번), 수용자 2명(615번, 618번), 직원 가족 2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최근 확진판정을 받은 607번과 관련해서는 직원과 수용자 등 795명을 검사해 수용자 2명을

제외하고 726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으며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광주시, 자치구, 질병 대응센터 등은 이날 교도소 내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검사 확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 비대면 외래 진료 시작...대면진료는 26일부터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응급실과 외래진료를 중단했던 전남대병원이 일주일만인 23일 비대면 외래 진료를 시작했다.

비대면 진료는 각 진료과에서 처방 대상자를 선별해 의료진이 환자와 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날 의료진들은 진료실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물어보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처방전은 팩스를 통해 환자가 지정된 약국에 보내는 방식이며 수납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 본관에서 장시간 줄을 서는 번거로움이 해소됐다. 다만 당분간 초진 환자의 진료는 받지 않는다.

이날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일 안영근 신임 병원장 주재로 열린 진료과실장 회의에서 병원 운영 정상화 대책에 대한 신중론 논의 끝에 결정된 것이다. 병원 측은 원래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호전되면 오는 25일부터 제한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시작하고, 대면 외래 진료는 26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13일 신경외과 전공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동료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입주업체 종사자, 광주교도소 직원 등 모두 60여 명이 확진됐다. 병원 1동 병실 전체는 지난 17일부터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됐으며, 간호사가 추가로 확진된 7명 역시 1~2층에 근무했던 접촉자들이 자가 격리하고 있다. /최희종 기자 chae@

소비할인권 6종 발급 잠정 중단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부문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중단 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이라도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활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소비할인권 신규 발급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할인권 중에서 예매하지 않은 할인권은 예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예매한 할인권은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중단했으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24일 0시부터 중단된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숙박 할인쿠폰이 56만 장 정도 발급됐다"며 "이미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순차적, 단계적으로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을 재개했다.

문체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바탕으로 소비할 인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별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 강화, 방역 관리·홍보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농어민등록제 도입...월 10만원 수당 지급을"

전농 광주전남연맹 토론회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 5만원씩, 농어가 단위로 지급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전남농어민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각각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농어의 공익적 책무를 높이는 한편 여성 농민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은 23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농어 민 공익수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보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전남 농어민수당 완성을 위한 과제"라는 기초발제를 통해 현재 전남 농어민수당 지급 근거가 되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개정을 역설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인 '농어민'의 개념 정의,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고쳐 모든 농어 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는 농민에 대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규정했는데, 이를 '농어업노동을 하거나 농어촌마을에서 거주하면서 전남농어민등록제에 등록된 사람'으로 바꾸자고 했다. 지급대상도 '수당 신청연

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에서,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전남농어민등록제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다'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대해선 '지급 대상에게 월 10만원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안을 제시하면서 '다만, 세대당 지급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원숙 전남 여성농민회 사무처장은 토론자로 나서 "농민수당 제도가 농업경쟁력 범위 안에서, 농가단위로 지급되면서 남편과 같이 농사 짓는 여성농민, 경영주의 부모 아래서 농사 짓는 자녀들이 제외되는 불완전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며 "저희 여성농민회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 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이에 정하웅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 민들의 의견대로 모든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액도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남도의 재정 형편, 22개 시군의 각각 다른 재정 형편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농어민 의견을 참고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지급 첫해인 올해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4대 6의 비율로 사업비 1149억원을 마련해 19만5000여 농어민에게 60만원(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30일까지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었지만, 이번 기한 연장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명확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단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가구 131만원, 4인 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 6억

원 이하의 시민과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12월 중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가 소상공인세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정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창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가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브즈, 수리사용가 신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신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회소 북면 옥리** 금호온천 인근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준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홀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연구과제 공모 공고

비엔이테크(주)에서는 회사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자의 연구력 향상을 위하여 "2021년 이후 중국의 환경 정책 방향"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주제 : 2021년 이후 중국의 환경정책 방향 (중소기업 BEM 접근 중심으로)
- 신청자격
 - 정규대학(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해당경력 5년 이상)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020.11.18. ~ 2020.11.25.(18:00)
 - 제출서류 : 연구활동 및 실적서, 연구계획서, 이력서
 - 열람방법 : 비엔이테크(주) 홈페이지(www.bnetech.co.kr) → 공지사항 확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메일 접수(e-mail : bnetech9062@daum.net)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연구소 지원담당 이주현 과장 062-945-9062

비엔이테크(주) 약제거설비
Bio & Environmental Technology 탈취/탈황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先州日報 **세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